



EU 카드수수료 상한선 도입 추진

이정환 선임연구원

■ 유럽연합(EU)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거래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주요 해외언론에 따르면 EU는 은행간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율을 0.2~0.3%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Wall Street Journal은 7월 17일 EU가 직불카드 소비자에게는 거래대금의 0.2%, 카드거래 소비자에게는 거래대금의 0.3%를 상회하는 수수료를 제한할 것이라고 보도함.
 - Financial Times는 7월 16일 EU가 은행간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율을 0.2%로 제한한다고 보도함.
- 유럽집행위원회(EC) 반독점정책분과위는 2013년 7월 24일 카드 거래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보임.
- EC의 이와 같은 제안은 회원국과 EU 국회에서 논의 및 수정되어 법제화 될 것이며, 법제화될 경우 국경간(비회원국과 회원국) 거래에 대해 2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역내외 전역에 적용될 예정임.

■ EC는 카드시장의 반독점 방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율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을 도입할 경우 카드시장 진입 신규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와 최소한 같은 수준의 수수료 수익을 창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카드시장에 접근 할 수 있음.
 - 현재 EU 국가의 평균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덴마크 0.1%, 네덜란드 0.2%, 프랑스 0.5%, 폴란드 1.5%, 독일 1.8%로 국가 마다 상이함.
- EC는 0.3%의 카드 수수료율이 소매업체에게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함.
 - EC는 0.3%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소매업체의 거래 비용은 현금 거래 비용과 같은 수준의 비용이 될 것으로 분석함.

- 카드 수수료율 상한선 도입으로 소매업체는 도입 이전에 비해 연간 30억 유로(약 4조 4,062억 원)의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글로벌 카드 결제 사업자인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EU의 제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 비자 및 마스터카드¹⁾ 등은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으로 카드 가입자의 회비가 상승하고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며, 수수료율을 낮춘다고 해도 소매업체들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다고 주장함.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상한선 도입으로 수익이 급감하여 EU의 의도와는 달리 카드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함.
 - EC는 카드 수수료율 상한선 도입으로 직불카드 거래 수수료는 연간 48억 유로(약 7조 499억 원)²⁾에서 25억 유로(약 3조 6,718억 원)로,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는 연간 57억 유로(약 8조 3,718억 원)에서 35억 유로(약 5조 1,406억 원)로 축소될 것으로 추산하였음.
- EU의 카드 수수료 검토는 2007년 마스터카드의 역내외 카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면서 촉발되었고 2012년 카드업체와 미국 소매업체간 카드 수수료율 조정 합의에 탄력을 받았음.
 - 마스터카드는 2007년 EU의 제소 이후 두 번째 항소를 진행 중에 있음.
 - 2012년 7월 EU는 같은 문제로 비자를 제소한 상태이며 비자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음.
 - EU는 비자의 역내외 카드 수수료 적용은 카드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카드 가입자 회비를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함.
 - 2012년 7월 비자, 마스터카드 및 은행들은 미국 소매업체에게 과거 카드수수료 60억 5,000만 달러를 반환하는 하는 한편 잠정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여 12억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절감해 주기로 결정함.

(Wall Street Journal, Financial Times)

1) 2011년 현재 EU에서 7억 2,700만 건의 카드가 발행되었고 카드 거래 규모는 1조 9,000억 유로이며,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역내 카드시장의 각각 41.6%, 48.9%를 점유하고 있음. 소매업체들은 연간 카드 수수료로 130억 유로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70%는 은행간 거래 비용으로 소요됨.
 2) 원/유로 환율로 약 1,468.74원을 적용함.